해란시리즈 IIUS
Expert Notes 2026-23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Institute for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Studies

이념적 이완과 통제 강화의 공존: 북한 체제 안정성의 역설

2026년 10월 20일

주형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형민 교수는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드폴대학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2012년 이후 V-Dem (Varieties of Democracy) 북한전문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외부에서 바라본 북한은 강력한 이념적 결속과 철저한 사회통제에 의해 유지되는 일사불란한 권위주의 국가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물질주의와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산되며, 지도부에 대한 사적인 비판과 외부문화 소비가 이루어져 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일반주민뿐 아니라 체제를 운영하고 감시하는 지배엘리트 내부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념적 충성이 약화되는데도 북한의 지배체제는 왜 유지되는가? 사회적 이완은 체제 불안정의 징후인가, 아니면 오히려 체제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적응기제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신념과 정치적 복종을 구분하고,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집단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조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공개적 충성과 사적 불신: 지배엘리트의 이중사고

북한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인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은 제임스 스캇(James C. Scott)의 '숨겨진 담론(hidden transcripts)'이다. 권력 앞에서 표출하는 공식적 언어와 사적 공간에서 드러나는 실제 인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강압적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충성의 공개적 표현이 내면적 신념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행동일 수 있다.

당·정·군과 보위기관, 문화계 등에 몸담았던 탈북자 24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이러한 괴리를 보여준다. 조사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 물질적 이익의 중시, 지도부에 대한 비공식적 비판, 남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인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충성을 표명하면서도, 사적으로는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었다.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개인과 가구의 생존은 시장과 비공식 경제활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와 이념적 충성 사이의 연결은 약화되었고, 물질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신념을 대체하거나 압도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지배엘리트 사이에서도 정치적 위신이 높은 직책보다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선호되고, 뇌물과 비공식 거래가 권력 운영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일탈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보위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이념적 이완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통제기구가 반드시 확고한 이념적 신념에 기초해 작동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지배체제의 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와 통치기구의 실제 작동능력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왜 불신은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북한 지배엘리트의 이중적 태도는 곧바로 체제 불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는 전통적 접근은 보상과 처벌, 즉 '당근과 채찍'이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경제적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반면, 정치적 이탈에는 심각한 처벌이 따른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엘리트들이 왜 기존 권력구조의 존속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운명공동체(community of destiny)'다. 북한의 지배엘리트에게 체제는 단순히 복종해야 할 정치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생존을 보장하는 구조다. 체제가 붕괴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이나 개인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더라도 체제 자체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는 지속된다.

이는 개인지배적(Personalist) 권위주의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엘리트는 체제를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운명과 자신의 생존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념적 불신이 반드시 지배연합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체제붕괴에 따른 공동의 위험을 인식할수록 엘리트들은 기존 권력구조를 방어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일반주민의 불만이 집단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불만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더라도 이를 공유하고 조직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회조직,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동행동의 구심점(focal point)이 없다면 집단행동은 성립하기 어렵다. 북한의 광범위한 감시체계와 조직적 통제는 이러한 연결을 차단한다.

결국 북한체제의 지속성은 이념적 동의의 강도만이 아니라, 엘리트의 이탈유인과 주민의 집단행동 능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약되는가에 달려 있다.

사회적 이완과 국가통제의 재편

시장화와 외부정보의 확산은 북한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를 곧바로 정치적 자유화나 체제약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국가 배급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율적 생존공간을 확대했지만, 동시에 국가가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고 통치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최근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경제적 자원유입과 국가주도 상업활동의 확대 가능성은 국가와 시장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과거 비공식 경제가 국가통제의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였다면, 이제는 시장활동의 존재 자체보다 그 수익과 유통망을 누가 장악하고 관리하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제의 강화도 양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강력한 단속과 감시는 국가의 억압능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기존 이념과 정치적 동원체계만으로는 주민과 엘리트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즉, 통제의 강화가 반드시 체제의 내적 결속강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 이완이 장기적으로 체제 불안정의 잠재적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과 실제 정치적 위기로 발전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불만이 정치적 위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엘리트 내부의 분열,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연결, 통치기구의 대응능력 약화 등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의 이념적 이완만으로 체제붕괴의 가능성이나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다.

북한체제 안정성에 대한 함의

북한의 체제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세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내적 신념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둘째, 지배엘리트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기존 권력구조와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셋째, 국가가 사회적 불만을 조직적 저항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능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 세 차원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념적 정당성이 약화되더라도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강압적 통제기구가 유지된다면 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반대로 강력한 외형적 통제 아래에서도 내부의 불신과 불만은 축적될 수 있다.

물론 탈북 엘리트의 증언을 북한주민 전체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의 탈북 시기와 이후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러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결론은 분명하다.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이념적 충성의 지속이 아니라, 이념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복종을 유지시키는 권력구조에서 설명해야 한다. 이념적 이완과 통제 강화는 상충되는 현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장기적 변화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질문은 사회적 불만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그 불만이 어떠한 조건에서 엘리트의 이탈과 집단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북한체제의 지속성과 잠재적 취약성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출발점이 있다.